



2년 만에 특선급에 복귀한 구동훈이 벨로드롬에서 연습주행을 하며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구동훈은 임기응변에 능한 선수로 뛰어난 순발력이 강점이다.

37세 구동훈 “특선급서 10년 더”

두 바퀴로 쓰는 HE-스토리

6연속 입상...2년만에 특선급 복귀 임기응변 능하고 순발력도 뛰어나 “타이어 끌기” 덕에 직선승부 가능 No pain, no gain...훈련량 늘릴 것

“2년 만에 특선급으로 복귀했다. 참 오랜 만이다. 젊은 선수들이 다수인 특선급에 노장으로서 복귀해 기쁘다. 후시나 싶었는데 행운이 따랐다. 그동안 훈련을 이끌어준 팀 선수후배들에게 고맙다.” 최근 6연속 입상으로 특선급에 복귀한 구동훈(37·127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4년 6월 우수급으로 강급했다 복귀했으니 2년 만에 특선급에서 뛰는 셈이다. 올해 12년 차. 30대 후반 줄에 들어서는 노장은 특선급 전락을 미리 세우 놓은 듯 했다. “특선급 준비는 끝났다. 팀 내 특선 머리급 선수들과 훈련하며 시속감을 익히고 있고 테크닉을 기르고 있다. 강자 위주로 편성된 금, 토요경주

는 다소 어렵겠지만 강자 빠진 일요 경주의 경우 기회가 온다면 쫓아내기 위해 욕심을 내겠다.” 구동훈은 ‘촌놈’이다. 경남 통영시 육지면 연화도가 고향이다. 심마을 소년이었다. 육지서 배로 죽어 한 시간을 가야 그의 고향에 닿을 수 있다. 열한 살 때 육지 통영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섬은 영원히 그의 고향이다. 자전거와는 비교적 늦게 만났다. 창원대 체육과 재학시절 선배들의 도움으로 인연을 맺었다. 한때 체육교사 임용고시와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이에서 진로 고민을 했지만 경륜선수로 활동했던 박광진(9기, 은퇴), 감병상(9기, 선발) 선배들의 조언으로 경륜의 길을 택했다. 임기응변에 능한 경기력과 순발력이 장점인 구동훈은 연구하는 스타일이다. 12년차 경험을 통해 얻은 경주 감각도 큰 자산이지만 끊임없는 경주 동영상 연구를 연구한다. 그러나 경륜은 머리 못지않게 체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른일곱의 노장은 어떻게 체력을 다지고 있을까.

“나만의 훈련비법이 있다. 타이어 끌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최용진, 박동수, 이정민, 지성환 등 팀 내 고참 선수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부족했던 회전력과 스피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강하게 되어 직선 승부가 가능해졌다.” 구동훈은 기억에 남는 경주로 2015년 2월8일 광명우수결승에서 첫 경기 통해 우승을 했을 때를 꼽았다. 당시 그는 조주선행이란 불리한 위치와 함께 경주 중반 6차까지 밀렸으나 출발 쫓아내기 통해 우승을 했다. 이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의 목표는 뭘까. 그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철두철미했다. 그만큼 삶의 ‘로드맵’이 확실했다. “좌우명은 ‘No pain, no gain’이란 미국 속담이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울조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정도다. 단기적인 목표는 생각보다 일찍은 특선급 승급이라 훈련 스케줄이 꼬이지 않게 훈련량을 늘리겠다. 노장으로 ‘마지막 특선급’이 될 수 있기에 과부하가 우려되나 욕심을 내보

였다. 장기적인 목표는 10년 이상 특선급 내지 우수급 머리급 선수를 유지하며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싶다. 올해로 48세인 박종현(6기, 특선급) 선수를 닮고 싶다. 유명한 선수는 아니나 늘 한 걸 같이 ‘구동훈’을 외치며 응원을 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 전하고 싶다.” 구동훈의 사생활이 궁금한 분을 위한 추신. 구동훈은 2008년 11월 결혼한 아내(박미진, 36세)와 사이에 8세 딸, 6세 아들을 두고 있다. 아내는 캠퍼스 커플로 같은 학과 1년 후 배. 함께 임용고시가 목표라 공부도 같이 했다. 그가 돌연 꿈을 접고 군복무, 경륜훈련원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잊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주며 용기를 주었다. 프로 데뷔 후 서울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아내의 학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렇게 알콩달콩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현재 아내는 기간제 교사로서 그만 두고 남편의 경주 동영상을 모니터링하며 뒷바라지를 하면서 응원도 하고 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선수도 모터도 더위와의 전쟁

집중력 저하·연대율 높은 모터 고전

경정은 물 위에서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보호장비와 헬멧, 경주복 등의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는 헬멧과 경주복이 체온을 급상승하게 만든다. 선수들은 마치 습식사우나 속에 있는 것처럼 흐르는 땀과 높은 습도 속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 이는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로 직결된다. 가장 많은 실수인 플라잉 스타트 위반은 매출감소와 함께 고객들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큰 원인이다. 플라잉 스타트 위반은 무더위가 심한 6월부터 9월초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난 17회차 목요경정에서는 5명의 선수가 플라잉을 범했다. 바람의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무더기 플라잉이 속출했다. 뜨거운 날씨로 인한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가 가장 컸고 수온상승으로 모터속도의 변화한 것도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플라잉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할 시기라고 했다. 사실 사람도 문제지만 모터도 큰 문제다. 레이싱 도중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모터는 무더위의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

기를 내뿜을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연대율 높은 모터들이 고전을 하고 반대로 하위권 모터들이 중급 이상으로 변신을 꾀하기도 한다. 지난 17회차 경주결과를 보면 수위권에 있는 01번, 132번, 159번 등 최상급 모터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그 뒤를 받치는 47번, 112번, 121번 모터들은 기대만큼 성적을 만들지 못했다. 대신 하위권모터로 평가되는 106번, 115번, 13번, 138번, 107번, 131번 모터들이 폭염을 이겨내며 꼴찌들의 반란을 이뤄냈다. 모터들의 높은 착순점과 연대율은 시속을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이지만 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오히려 기존 자료들이 경기분석의 독이 될 수도 있다. 폭염주의보가 발동되는 시점에는 경주 당일 훈련내용과 소개항주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수온 상승에 따른 시속 반감과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는 어쩔 수 없이 무더위 속에서는 이번 속출의 횡수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름철에는 더위가 경주의 가장 큰 변수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 경주에서는 분산 베팅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재호 기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우르는 승강제 운영방식인 통합 축구클럽 리그 디비전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라운드에서 불을 다루고 있는 축구 동호인들.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한국 축구, 선진국형 디비전 시스템 도입

아마추어 아우르는 총 7개리그 승강제 프로 K1~K2, 아마추어 K3~K7 운영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환·강영중)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한국 축구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형 축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프로, 아마추어를 아우르는 통합 축구클럽리그 디비전 시스템을 도입한다. 디비전(Division) 시스템은 스포츠리그를 운영할 때 상위리그는 상위 리그로 승격하고 하위 리그는 하부 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2013년 승강제를

도입한 K1(클래식)·K2(챌린저) 프로리그와 함께 실업축구리그인 내셔널리그, 아마추어 전국 최상위 리그인 K3 리그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의 생활축구 리그와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축구리그는 생활 축구와 엘리트축구가 결합해 프로 K1 리그에서부터 기초 지역별 생활축구 리그인 K7 리그까지 총 7개부류로 나누어 운영체계를 갖추게 된다. K7 리그는 시군구 지역별 축구클럽, K6 리그는 17개 시도별 광역축구클럽, K5 리그는 전국 단위 아마추어 축구클럽, K3~K4 리그는 세미프로 및 아마추어, 6부 리그 이하는 지역별 리그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12부 리그까지 운영한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2013년 승강제를

연재호 기자 ranbi@donga.com

33명 서울체고·29명 창원공고 출신...‘명문고 파워’

스타선수들 활약, 후배들에 동기부여 서울체고 졸업생 정종진 “자부심 커”

경륜 관계자들은 “경륜 선수가 되는 게 어렵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선수가 중, 고등학교 때 사이클을 시작해서 경륜 선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선급 선수로 자리 잡는다는 건 사법고시 합격보다 더 드문 확률이다. 해마다 20명 내외의 경륜훈련원 선수가 배출되지만 이 가운데 기록 테스트 미달과 졸업 후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한 하위권 5% 선수들은 짐을 싸야 한다. 아쉽지만 현실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벨로드롬에서 뛰는 선수들의 집단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29개 팀 선수들의 출신 고교를 조사했다. 선수 개인의 영향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출신 고교별 영향력



정종진 이현구

들이 모교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27명의 경북체고는 최고참 원종배(51세, 선발급)가 앞서고 박일호, 김원진(이상 특선급)이 뒤를 따른다. 이밖에 23명의 의정부공고는 김주상, 김동관, 박성현, 윤현준(이상 특선급)이, 22명의 가평공고는 공민우, 김근영, 박대한, 유태복, 김용해(이상 특선급)가 경기 북부지역의 명맥을 잇는다. 미원고, 전라고, 동대전고, 광주정보(실업)고, 인천체고, 부천고, 양양고, 김해전고, 합덕(농)고 등도 각각 20명에서 10명까지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체고를 졸업한 슈퍼특선 정종진은 “1년에 한 두 차례 모임을 통해 사이클 명문고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한다.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선배들이 있었기에 후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체고와 창원공고는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좋은 선수가 몰리고, 이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

져 다시 좋은 후배 선수들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결과다. 창원기공 출신으로 2014 그랑프리 챔피언이자 현재 슈퍼특선인 이현구는 “창원기공 출신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럽다. 많은 선배님들이 발판을 잘 만들어 주신 덕분이다. 앞으로 더 좋은 후배들이 나와 경륜에서 멋진 활약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동문 경륜 선수의 좋은 활약은 이처럼 후배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경륜전문가는 “현재 전국 남자 고교 사이클팀은 36개로 200명의 선수가 활동한다. 경륜선수의 출신고교는 30개 내외다.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도 있고, 모교 사이클팀이 해체된 경우도 있다. 고교 사이클팀은 재학생과 학부모, 동문인 경륜선수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준다. 몇몇 경륜선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이 고교는 물론, 경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연재호 기자

연재호 기자



경륜 ‘해오름 꿈의 자전거 학교’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광명 스피돔에서 광명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의 해오름 자전거 학교’ 개소식을 열고 시행에 들어갔다. 광명시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오름 꿈의 자전거 학교는 학생들이 동아리 조직을 구성해 자전거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자전거 학교에는 광명시 중·고등학생 80명이 참가했

으며 매주 화요일 방과후 3시간씩 스피돔에서 자전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오는 10월 결과를 공유하고 10월 29일 수료식을 갖는다.

경정, 여름맞이 단오축제 개최

경륜경정사업본부는 민속명절 단오인 6월 9일(음력 5월 5일) ‘더위야 물러가라! 경정 단오축제’를 개최한다. 미사리 경정장 관람동 인근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단오 전통놀이, 동심놀이, 겨루기놀이 등 테마별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정 관계자는 “축제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놀이와 함께 단오 전통음식과 여름맞이 부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편지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